

글로벌 전환기 속 성평등 정책의 미래¹⁾ OECD 성평등 포럼의 논의내용을 중심으로

윤지소(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협력센터 연구위원)

-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디지털화를 포함한 글로벌 전환은 사회 전반에서 성평등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임금 격차, 기술 습득 기회, 여성 대표성과 같은 기존의 성별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위험이 있음.
- 이러한 배경 하에 OECD는 2024년 6월 성평등을 주제로 고위급 포럼을 개최하였음.²⁾ 본 포럼에서는 ▲ 기후위기, ▲ 에너지 전환, ▲ 디지털 혁신, ▲ 구조적 불평등, ▲ 정책도구 및 데이터라는 다섯 개 주요 부문에 초점을 맞추어 세션을 구성하고, 부문별 현황을 살펴보고 대응 전략을 모색하였음.
- 본 브리프는 각 세션별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이를 토대로 글로벌 전환기 성평등 정책의 미래를 진단함.

1)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국제전환 탐색(Navigating Global Transitions)」을 주제로 OECD 본부에서 개최된(2024년 6월 10일-6월 11일) 성평등 포럼(OECD Forum on Gender Equality)에 참석하였음. 본 브리프는 해당 포럼 개최를 계기로 OECD 측이 공개한 포럼 배경설명 자료(2024b), 회의결과(2024a),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출장보고서(2024)등을 토대로 작성하였음.

2) 금번 포럼은 성평등을 주제로 OECD 차원에서 처음으로 개최한 고위급 포럼이며, 향후 격년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글로벌 전환기와 성평등

- 20세기 들어 전 세계적인 여성인권 규범의 확산은 여성의 투표권, 노동권, 신체결정권 등 다양한 권리 신장으로 이어졌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평등 달성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음. 여성의 정치·경제·사회적 자원 접근은 여전히 제한되어 있으며, 정치적 양극화, 사회경제적 불평등으로 성별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음.
-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 등 전 세계적 변화는 우리사회 전반에서 성평등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함.
 - 예를 들어, 체계적인 친환경 활동 및 에너지 전환, 교육·훈련 이니셔티브 확대 등을 통해 성평등을 촉진할 수 있음.
 - 또한, 여성이 주도하는 민간 및 공공 조직이 기후위기 이니셔티브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며, 에너지 부문의 성평등은 탄소중립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나아가, 디지털 전환은 여성의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고, 고용 전망을 상승시키며, 소셜 미디어를 통한 정치 및 공공 활동에 대한 참여를 제고함.
- 하지만 동시에 기후위기와 에너지, 디지털 전환은 임금 격차, 기술 습득 기회, 여성 대표성과 같은 영역에서 기존 성별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위험이 있음.
 - 기후위기는 영향은 여성에게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토지와 천연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개발도상국에서는 더욱 그러함.
 - 뿐만 아니라 여성은 에너지 부문에서 계속해서 과소 대표되고 있는데, 에너지 부문 창업 비율도 기타 산업에 비해 낮고(20.0% vs. 11.0%), 에너지 부문에 종사하는 여성의 소득 역시 남성에 비해 낮음.
 - 디지털 기술은 여성과 여아의 역량 강화를 위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지만, 성별 격차를 악화시킬 수도 있음. 포용적 디지털 미래의 실현을 위해서는 인공지능(AI)을 포함한 디지털 기술 개발에 여성이 함께하는 것이 중요함. 즉, 디지털 환경이 여성과 여아에게 안전한 공간이 되도록 보장함은 물론, 이들의 정신건강 문제나 젠더 기반 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것 역시 중요함.
 - 한편, 중립적인 것으로 추정되는 정부의 정책 도구들은 특히 정책 결정, 예산의 집행 및 규제 등에 있어 성별이 개인의 경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지 않음으로써 기존의 구조적 불평등을 강화할 수 있음.
- 이러한 배경 하에 OECD는 2024년 6월 성평등을 주제로 첫 고위급 포럼을 개최하였음. 포럼은 ▲ 기후위기, ▲ 에너지 전환, ▲ 디지털 혁신, ▲ 구조적 불평등, ▲ 정책도구 및 데이터에 초점을 맞추어 구성된 5개의 세션을 통해 부문별 현황을 살펴보고 대응 전략을 모색하였음. 본 브리프는 각 세션별로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글로벌 전환기 성평등 정책의 미래를 전망하고자 함.

글로벌 전환기 주요 부문별 현황

■ <OECD 성평등 포럼>의 각 세션에서 다룬 글로벌 전환기 주요 부문별 현황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기후위기와 성평등

[1세션] 넷 제로(net-zero)를 위한 성평등 및 기후 행동 통합

- ◆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과 성평등 사이의 관계 분석
- ◆ 여성의 녹색 경제 활동 참여를 통한 경제적 기회와 리더십 확대 방안 논의

- 기후위기는 토지와 자연에 대한 접근과 통제의 구조적 불평등으로 개발도상국에 불균등한 영향을 미침.
- 여성은 전 세계 농업 인력의 43%를 차지하지만 토지 소유자 중 여성은 15% 미만에 불과함. 더욱이 여성은 녹색 부문에서 과소대표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OECD 회원국 기준으로 녹색 일자리의 28%만을 차지하고 있음.
- 한편, 여성은 기후위기와 기상 이변으로 인해 난민이 된 인구의 80%를 차지하며, 이로 인해 젠더 기반 폭력의 피해자가 될 확률 역시 높음.
- 기후위기는 소득과 생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여학생의 학교 중퇴율, 조혼 및 강제 결혼 증가와 연결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 환경, 재해 위험 감소 및 관리 전략에서 성별이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농업, 에너지, 산업 분야의 공식적인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성의 대표성은 제한적임.
- 한편, 기후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분야(에너지, 운송 등)는 성평등 달성을 가속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실제로 녹색 전환은 2030년까지 4천만 개가 넘는 일자리를 창출하여 고용 시장을 확장하고 있어 여성 일자리의 확대도 기대됨.

■ 포괄적 에너지 전환과 성평등

[2세션] 에너지 전환 시대의 성평등 활성화

- ◆ 포괄적 에너지 전환에 있어 성평등 관점의 중요성 강조
- ◆ 여성이 에너지 전환의 적극적인 기여자이자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전략 모색

- 여성은 에너지 부문에서 여전히 과소대표되고 있으며, 에너지 부문에 종사하는 여성은 남성에 비해 임금이 20%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에너지 부문에서 여성은 고위직 5개 중 1개 미만을 차지하며, 에너지 스타트업 중 여성이 설립한 기업의 비율은 11%에 불과함.

- 향후 에너지 부문에서 1억 3,90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재생 에너지를 포함한 기타 녹색 일자리는 성평등의 잠재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여성이 리더십을 발휘한 조직에서 다양한 성과를 내거나, 여성 기업가는 남성에 비해 기업의 경제적 목표보다 지속가능성을 우선시할 가능성이 더 높고, 여성 이사는 책임 있는 기업 경영을 우선시하며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 문제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 등이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음.

■ 디지털 전환과 성평등

[3세션] 디지털 성 격차 해소 및 디지털 기술이 여성 및 여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 ◆ 디지털 혁신이 여성과 여아의 역량 강화에 미치는 영향 진단
- ◆ 성평등 관점이 디지털 성 격차 해소, 온라인 폭력 근절 등의 방안 모색

- 디지털 전환은 여성과 여아의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차별, 부정적인 고정관념, 사회·문화적 편견을 강화하고 있음.
-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여성과 여아의 완전하고 평등한 참여를 방해하는 수많은 요인들로 인해 정보통신기술(ICT) 및 과학과 같은 분야에서 상당한 성별 격차가 발생함. 예를 들어, OECD 회원국에서 ICT 전문가로 일하는 남성의 비율은 여성에 비해 3~7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인공지능(AI)을 포함한 연구개발(R&D) 분야에서 여성은 과소대표되고 있으며, 디지털 영역에서 여성과 여아가 직면하는 여러 문제는 기술매개 폭력의 위협과 사이버 괴롭힘, 고정관념의 확산 등으로 인해 더욱 악화됨. 뿐만 아니라 온라인 폭력과 사이버 괴롭힘 등은 여성과 여아의 정신건강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디지털 전환은 여성의 소득 증대와 고용 창출, 참여 및 대표성 제고, 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 확대와 연관되며, 성평등 관점은 인재풀(pool)의 확대,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새로운 관점과 혁신적인 문제 해결 접근 방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디지털 전환에 기여함.

■ 성평등을 위한 다부문 접근(Multi-sectoral Approach)

[4세션] 성평등을 위한 다부문 접근 방안: 성평등을 저해하는 구조적 장벽 / 제한적 남성성과 사회 규범

- ◆ 구조적 불평등과 차별적 사회규범 고찰
- ◆ 성 불평등의 근본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논의

- 정책 영역 전반에 걸친 지속적인 구조적 장벽은 우리사회 성평등 실현에 장애물이 되고 있음. 젠더기반폭력, 차별적인 사회 제도, 유해한 사회 규범, 불평등한 권력관계, 성별 고정관념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무급 돌봄과 가사 노동 시간, 낮은 고용률, 견고한 유리 천장은 여성의 경제적 기회를 차단하고 임금, 평생 소득 및 연금 소득의 성별 격차를 지속시킴.

- 여성의 정치적 과소대표성 역시 고착화되고 있어 성 불평등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혁신적인 접근 방식이 요구됨.

■ 포괄적 글로벌 전환을 위한 정책도구 및 성인지 데이터 활용

[5세션] 포괄적 글로벌 전환을 위한 정책도구 및 데이터 활용

- ◆ 기후위기 및 디지털 전환에서 정책 및 자원 할당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
- ◆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과 같은 정책도구와 성인지 데이터의 필요성 강조
- 정부는 법률, 규정, 예산, 공공 조달 및 기타 정부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교차적이고 다차원적인 접근 방식을 도입하여 기후위기 및 디지털 전환의 대응에 있어 성평등을 촉진하도록 보장할 수 있는데, 성인지예산이 대표적인 정책도구라고 할 수 있음.
- 2022년에는 OECD 회원국의 60% 이상이 성인지예산을 활용한다고 보고되었는데, 이는 2015년의 35%에 비해 상승한 수치임.
- 한편, 기후위기 의제와 관련하여 OECD 회원국 중 57%만이 정책 결정 시 성별 영향을 고려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회원국이 채택한 환경 및 녹색 회복 조치 중 약 2.5%만이 성별을 고려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개선이 필요함.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인지적 정책도구의 사용과 데이터 구축, 명확한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가 필요함.

글로벌 전환기 성평등 정책 대응 전략

■ 부문별 대응 전략

- 포럼은 기후, 에너지 및 디지털 전환의 맥락 속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 전략을 제안하고 있음.
 - 모두가 새로운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포용적이고 균형잡힌 인력 육성 전략 마련
 - 남성 육아휴직 장려, 보육에 대한 접근성 향상, 유연 근무 활성화가 필요하며, 포용적인 직장 문화 조성, 기업 내 성별 다양성 촉진
 - 모든 정책 영역 및 부문에 걸쳐 의사 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 역시 강조
 - 구체적으로, 기후, 에너지 및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여성과 여아의 환경 및 에너지 관련 분야 교육훈련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고, 여성이 경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며, ICT, 과학, 수학과 같은 분야에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소외 계층의 여성과 여아를 지원해야 함.
 - 기후, 에너지 및 디지털 전환 관련 정책 및 전략에 성주류화 필요

- 기후 적응 및 완화 정책에 있어 포괄적인 성인지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성별 요소를 체계적으로 고려할 필요
- 성별에 따른 재해·재난 영향을 분석하여 위험 관리 전략에서 성인지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 가속화
- 동시에, 정부는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포괄적인 성평등 교육 및 인식 제고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증진하며, 지역사회에 기반한 성평등 이니셔티브를 지원해야 함.
- 나아가, 성별로 구분된 데이터와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다양한 정책 영역에 걸쳐 성 주류화를 지원하기 위한 거버넌스 도구 및 역량을 개발해야 함. 이는 녹색, 에너지 및 디지털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성주류화 추진을 위한 전 정부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임.

● **종합해 보면, 글로벌 전환기 성평등 달성을 가속화하면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국내외 정책에 있어 포용성과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다양한 인구 집단을 의사결정과정에 포함하고, 성별 교차적인 데이터를 수집할 필요가 있으며, 성평등 달성을 위해 정책 영역 전반에 걸쳐 성인지예산, 성별영향평가와 같은 성주류화 관련 정책도구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함.

<표> 전환기 성평등 달성을 위한 정책 제언

▶ **기후, 에너지, 디지털과 같은 분야에서 성평등한 포용적인 환경을 조성하려면 성평등을 저해하는 모든 장벽 제거 필요**

- 성평등 인식 제고 및 성차별적 고정관념 해소와 더불어, 거버넌스 전체에 걸쳐 재정 지원, 포용적 인프라 구축,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및 파트너십 강조, 폐기물 감소, 에너지 접근성 제고, 지속가능한 소비 촉진

▶ **여성이 관련 분야에서 경력을 쌓고 유지하도록 장려하여 글로벌 전환이 가져오는 경제적 참여 기회를 촉진 필요**

- STEM 및 ICT 분야에 여성과 여아의 참여 지원, 녹색 일자리에 성별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포괄적인 훈련 기회 제공, 다양한 역할 모델 장려
- 유연한 근무 방식, 육아휴직, 차별 금지 조치 등 기업 내 포용적 문화 조성
- 에너지, 녹색 및 디지털 분야 여성창업 지원 강화(예: 자금 지원, 플랫폼 개발)
- 여성과 소외 계층에게 포괄적인 디지털 활용 능력과 기술 교육 제공

▶ **글로벌 전환 과정에서 리더십과 의사결정에서 성평등 증진.**

- 리더십 개발 기회 제공, 여성 할당제 등의 정책 채택
- 여성과 여아가 STEM 교육 기회를 탐색하도록 장려하고 여성 주도 에너지 프로젝트 지원
- 환경정의 실현 과정에서 여성의 목소리 확대
- 기후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된 농업 및 임업과 같은 분야 의사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환경단체의 리더십을 강화하며 여성이 자원과 기회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

▶ **글로벌 전환 속에서 성평등을 방해하는 구조적 장벽과 유해한 규범 및 고정관념 근절**

- 남성성을 포함한 사회규범에 대한 자료 수집 및 영향 분석
- 기술매개폭력 포함 젠더기반폭력 근절을 위한 법제도 정비, 데이터 수집에 있어 생존자 중심적 접근 확대, 시민사회 및 플랫폼 사업자와 같은 다양한 주체를 포괄하는 파트너십 구축, 온라인 피해 예방, 피해자 지원
- 여성 고용의 질적 향상, 성별 임금 격차 해소, 무급 노동의 불평등한 비율 감소

▶ **성평등을 정책 결정의 중심에 두고 사회 전반의 협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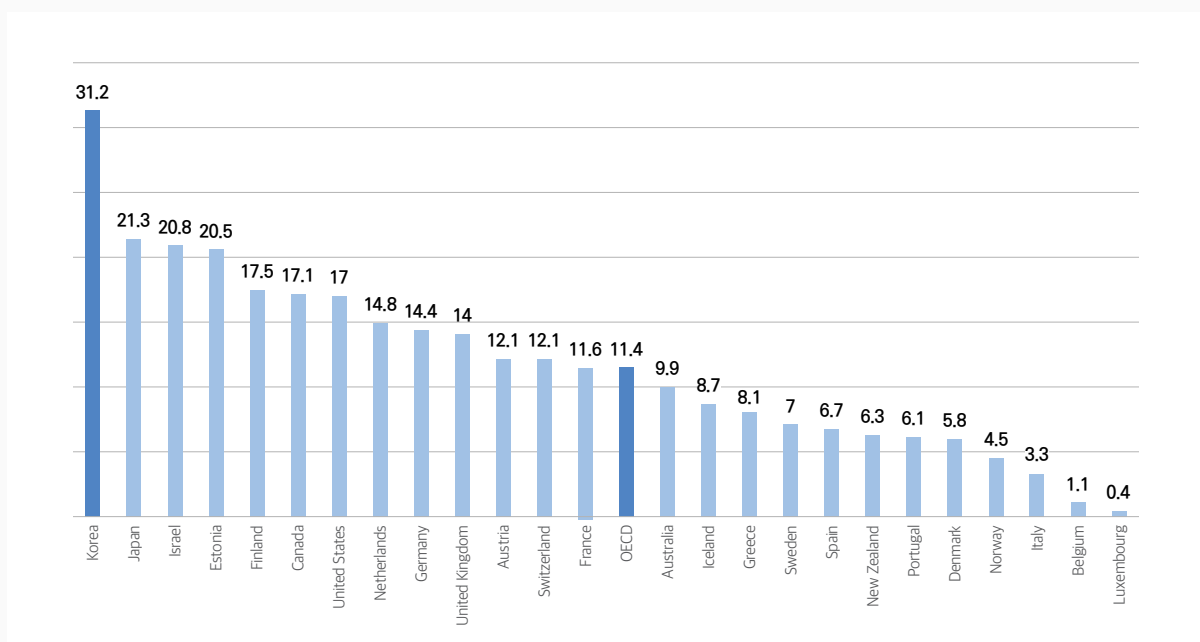
- 기후, 에너지 및 디지털 전환 관련 전략에 성평등을 통합하도록 지원(예: 데이터 수집 및 정책도구, 교육훈련 및 역량 강화 지원)
- 공공 조달, 예산, 규제 등 정부 의사결정 과정과 도구에 성별 관점 통합. 특히 이러한 과정에 시민사회를 포함한 광범위한 행위자의 참여 독려
- 글로벌 전환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 통합 및 확산하고, 빅데이터를 포함한 확장된 데이터 소스의 디지털화 활용 등을 통해 다른 불평등과의 교차점 해소
- 성평등에 대한 의지를 강화하고 정책 및 예산 측면에서 성주류화 확대

시사점과 정책 제언

■ 시사점

- OECD가 공개한 성별 임금 격차(gender wage gap)에 따르면 2022년 기준 OECD 회원국 평균 성별 임금 격차 11.6%와 비교해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31.2%로 가장 컸음. 한국은 1996년 OECD 가입 이래 계속해서 회원국 중 성별 임금 격차 1위를 차지하고 있음. 기후, 에너지 및 디지털 전환 속에서도 이러한 성별 격차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그림> OECD 주요 국가별 성별 임금격차



출처: OECD(2024). Gender wage gap, <https://www.oecd.org/en/data/indicators/gender-wage-gap.html>

주: 남성 중위임금이 100일 때 여성과의 격차(2022년도 기준)

- 특히,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강점을 보이며 선도하고 있는 디지털 분야에서조차 성별 격차는 계속되고 있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최근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기업이 특정 기술(예: AI, 클라우드, 빅데이터, 블록체인, 3D 프린팅, 로봇 공학, 가상 및 증강 현실 등)을 채택했는지 여부를 변수로 산업 차원의 디지털 전환 채택 비율을 계산하고 이것이 성별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분석한 결과 디지털 기술과 여성의 취업률이 음의 상관관계임이 드러났음. 그 이유는 남성이 여성보다 기술 기반 직업에 더 많이 고용되었기 때문임. 한편, 디지털 기술의 채택에 따른 임금 상승은 여성에게도 해당되지만, 남성의 임금 상승률이 더 크기 때문에 성별 임금 격차 역시 커졌음.
 - 따라서, 한국에서 디지털 전환은 여성의 임금 상승에는 기여하고 있지만, 즉, 기술 격차, 성별 편견 및 고정관념, 성별 직종분리 현상 등으로 인해 성별 임금 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한국 여성들은 여전히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뒤처져 있다고 할 수 있음³⁾

3)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출장보고서(2024) 중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의 발표내용 참고.

■ 정책 제언

- 무엇보다 여성이 STEM 분야를 더 많이 전공하고, 해당 분야에 진출할수록 디지털 전환에 따른 성별 격차가 줄어들기 때문에, 대학 및 대학원 수준에서 여성의 전공 선택을 장려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여성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 및 미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새로일하기센터, 디지털 및 신기술 분야의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형 인재양성을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이 더욱 고도화되고 확대 되어 디지털 분야 여성인력 육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한편, 여전히 디지털 분야 기업은 남성 인력이 주를 이루는데, 이러한 기업의 조직문화는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에게 우호적이지 않을 수 있음. 따라서 일·가정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유연근무의 확대와 같은 기업 차원의 다양한 조치 역시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참고문헌

- OECD. 2024a. OECD Forum on Gender Equality: Navigating Global Transitions. Co-Chairs' Summary. <https://cdn-assets.inwink.com/df17c892-6bc2-4e5a-8e22-2086cee7d749/2121eb4b-1601-4e11-956f-07defbed255d?sv=2018-03-28&sr=b&sig=S1SYWtPFiigqVj4wKu-1zyeL%2BJ4BFXRhNisezUHZcldE%3D&se=9999-12-31T23%3A59%3A59Z&sp=r&rscd=inline%3B%20filename%3D%22Co-Chair%27s%2520Summary.pdf%22>
- OECD. 2024b. OECD Forum on Gender Equality: Navigating Global Transitions. Key Issue Paper. <https://cdn-assets.inwink.com/df17c892-6bc2-4e5a-8e22-2086cee7d749/c81fd8c7-d505-4727-82c5-37cb74585532?sv=2018-03-28&sr=b&sig=PI6Aoe04q%2Bm%2BXehtmlbEy2EgoBclEeFJBvnmNPKUonw%3D&se=9999-12-31T23%3A59%3A59Z&sp=r&rscd=inline%3B%20filename%3D%22Final%2520version%2520of%2520the%2520key%2520issues%2520paper%2520EN.pdf%22>

● 기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4. OECD 성평등 포럼 참석을 위한 프랑스 출장 결과보고서. <https://www.kwdi.re.kr/research/traReportView.do?p=1&idx=132353>
- OECD 성별임금격차 통계. <https://www.oecd.org/en/data/indicators/gender-wage-gap.html>